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

Altruist

[강연] 오늘날 이타주의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최정규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앰허스트 소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10월 『사이언스』에 박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새뮤얼 보울스 교수와의 공동연구의 성과물인 「자기집단중심적 이타성과 전쟁의 공진화」라는 논문이 실려 학계와 언론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은 책으로는 『이타적 인간의 출현』, 『게임이론과 진화 다이내믹스』, 옮긴 책으로는 『자본주의 이해하기』, 『승자의 저주』 등이 있다.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보내드리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이타주의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최정규 (경북대학교 교수)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왜 무감각해지기 어려울까? 극단적인 경쟁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면서도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타인을 위한 실천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손해를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행동하기도 한다.

진화생물학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이 분명 유리하지만 인간에게 어떻게 이타주의적 성향이 남아있게 된 것일까? 극단적으로 말해 인간은 왜 사이코패스로 진화하지 않게 되었을까?

최정규 교수는 그 이유를 이타주의가 단지 규범적인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경제적 현실에 입각해 있다고 말한다. 이타주의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만이 아니라 인간의 잘 활용해야 하는 경제적인 자원으로서도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

- 도덕적 허상이라는 이타주의에 대한 통념
- 규범적 지침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원리인 이타주의
- 심리학 실험이 이타주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
- 시장과 이타주의의 보완적인 관계

그 동안 이타주의를 둘러싼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극단적 전망 사이에서 동요해왔다. 한편에는 이타주의에 근거한 공동체적 사회질서라는 도덕적 유토피아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타주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시장 사회질서라는 경제적 유토피아가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두 극단적 전망 사이에서 이타주의의 자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은 이타성을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사람이라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실증적 의미에서 이타주의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타성이란 자신에게 발생할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을 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을까?

이타주의가 도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본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답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과연 이타적 성향이 근대 사회에 어울리는 것인가의 문제다. 이타주의나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공감은 더 이상 거대한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본성에 불과한 것 아닐까?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누군가의 이타성에 기대지 말고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대규모 협력 체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이타적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그리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질서를 찾아내는 데 관심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경우에도 잘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찾고자 애써왔고, 시장이 그러한 제도임을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이타주의 없이도 작동 가능한 시스템임을 보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주의 없는 순수한 시장이란 사실 허구적 유토피아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협력 체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노동 관계를 생각해보자. 노동 계약은 자본의 소유자와 노동력의 소유자 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시장 거래다. 그런데 이 거래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A4 용지를 사거나, 컴퓨터를 주문하는 거래와는 많이 다르다. 컴퓨터나 A4 용지 거래의 경우, 제품을 보내고 하자가 없다면 그것으로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는 종료된다. 반면 노동력 거래에서는 노동력의 공급자가 노동력이 사용되는 바로 그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거래자들은 직접적 대면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문제, 즉 인권의 문제라든가 권력의 문제 등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 컴퓨터나 A4 용지의 경우라면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든 판매자가 알 바 아니지만, 노동력의 경우에는 노동력을 구입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판매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거래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는지가 경제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어느 사회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개인은 살아가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대규모 협력 체계로서의 시장이 우리 사회의 주된 메커니즘이 된 오늘날에 있어서조차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여전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필요 없는 거래는 없다.

그렇지만 이타주의적 실천이 시장이라는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시장이라는 제도의 핵심에는 이타주의가 여전히 수행하는 역할이 남아 있고, 그러한 점에서 시장과 이타주의는 대체적인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규범적 기초로서도, 시장에 의해 포괄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타주의는 여전히 중요한 자원이다.